쾰른 가구박람회 & Heimtextil 참관기

우주현 | 기술개발부 | 02) 3433-7708 | cosmo@mail.ssyenc.co.kr

1. 전시회

독일프랑크푸르트 Heimtextil

- Floor-Wall-Window Decoration & Furniture Fabrics
- Bed-Bath-Table & Kitchen Linen

독일쾰른가구박람회

- Living room & Bedroom Furniture
- Interior Lifestyle Design
- Table & Chairs
- Lighting

2. 전시일정

Heimtextil 2001년1월 10일 ~ 13일(3박4일)

쾰른가구박람회 2001년1월 15일 ~ 21일 (6박7일)

3. 전시내용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에서 매년 1월초에 열리는이두가지전시회는 한해인테리어에관한전반적인경향을 알수있는중요한전시회이며, 세계각국에서 몰려온 관련 회사와 젊은 디자이너들로 성황을 이룬다. 특히 올해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첫 전시회라는데큰의미가있다.

4. 전시회현황및내용

- 프랑크푸르트가정용직물박람회

HEIMTEXTIL(Int'l Trade Fair Floor-Window Decoration & Furniture Fabrics/Bed-Bath-Table & Kitchen Linen)

전 시 장: Messegelande

전시규모: 67개국 3,116여개업체참가, 7만5천여명 참관

전시품목: 데코레이티브패브릭, 커튼류, 블라인드, 벽지, 샤워커튼, 빛가리게, 침구류, 린넨, 얀, 프린팅 시스템등

- 쾰른가구박람회

(Int'l Furniture Fair)

전 시 장: Messegelande

전시규모: 800여개업체참가, 15만여명참관

전시품목: Avantgarde Design Centre, period & rustic furniture, 테이블, domestic & chambress a coucher, 의자종류

>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에서 매년 1월초에 열리는 이 두 가지 전시회는 한해 인테리어에 관한전반적인경향을알수있는중요한전시회이며, 세계각국에서 몰려온 관련 회사와 젊은 디자이너들로 성황을 이룬다. 특히 올해는 앞으로다가올21세기의첫전시회라는데큰 의미가있다.

5. Heimtextil

경향

작년에 이어 새로운 21세기에 대한 희망은 컬러의 복귀와 프린트패턴의 부활과 복고와 현대의 혼합, 가벼움과 무거움, 투명함과 반짝거림 등 Fusion이 하나의 큰 테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남성적이고 미니멀적인 느낌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여성적 이미지로급속히발전되고있다.

그러나기능과디자인의기본은현대적인감각을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부각되었던금속적차가움보다는새로운 Naturalism의안락함과 편안함이 새로운 디자인 테마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유행의 경향은 기본으로 하여 4가지의 주제(Camping, Loft, Cafeteria, Salon)로분류되었다.

DISPLAY

가벼움과희망적인주제와함께동양적인이미지의소재와 현대적 메탈릭한 소재의 결합, 결코 거칠지 않은 자연적 식물 오브제, 가죽, 반짝임이 있는 장신구 등으로 디스플레이 소품을 응용했으며, 자연적인 소재를 멋스럽고 현대적 감각으로재해석한건축적이미지, 철저하게 단순화시킨 오브제나 가구들에서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새로운 자연주의적 이미지가 강조되고있다.

COLOR

이번 시즌에는 색이 부각되며 마침내 섬세하고 밝은 칼라가 다시 등장했으며, 새롭고 흥미로운디자인들이표현되어지고있다.

전반적으로 밝고 gray 계열이 조금씩 가미된 세련된 칼라와 대비되는 칼라의 사용은 모노톤의 칼라에서 오는 안정감에서 대비감과 경쾌함을 강조하며 세련된 칼라를 강조하고 있다. 악센트 칼라의 적절한 사용은 칼라의 파워를유도하고있는 듯하며, 더 이상암울한 칼라를받아들이지않으려는추세이다.

강렬한 3가지 색조 - 블루, 레드, 그린과 두 가지의 파스텔칼라- 핑크, 옐로우. 올해우리는이다섯가지 칼라를주목해볼필요가있다.

Köln
Int'l Furniture Fair

이번 전시회는 다가올 새 천년에 대한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감이잘표현된전시회라고볼수있다. 한동안유행했던인위적인칼라와무채색보다는 다양하고밝은 칼라와 천연소재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그렇다면 올해에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무엇일까? 그것은바로미래지향적이면서도자연으로돌아가고 싶은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이다. 여기에 공간의 다변화를 준 새로운 개념의 공간 디자인도 눈여겨볼만하다.

PATTERN

프린트의 부활은 새로운 자연주의적 영향으로 flower, 풀줄기, 작은열매, 나뭇가지 등의 자연적 이미지와 modern exotic의이미지인애니멀스킨, 오래된영화에서 느껴지는 동양적인 디자인, 결코 사실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은 단순화된 식물의 영감에서 나온 디자인, 자연스러운 스케치 패턴, 그래픽적인 구성이나 line에서영감을받은texture 패턴등프린트패턴의복귀는 현대적이고 단순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세련미와 부드러움을내포하고있다

6. 쾰른가구박람회

경향

Naturalism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심리적 욕구는 올 봄 쾰른 가구 전시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여기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소재와칼라들이많이나타났다.

Modernism 유리와 금속 소재들을 사용하여 더욱 세련미를 연출하였으며, 이와 조화된 단순함과 선을 강조한현대적인감각의 design에표현되었다.

소재

LIGHT WOOD - 내츄럴한 천연 원목질감 느낌의 maple, white cheery 및 wash oak 도장제품이 많이 사용되었다

AL +유리 - 손잡이는 대부분 AL 제품과 아크릴 소재가 대체적으로많이사용되었고, 가구의도어자체를손잡이로 활용한 디자인들과 투명, 불투명, 강화유리 등이 적절히조화있게사용된디자인들이많이보여졌다.

COLOR

white, gray 또는 ivory 계통의 도장제품 색상들과 사용 전체적으로는밝고자연스러운원목그대로의내츄럴한색상이많이적용되었다.

특징

가구의 공간구성은 세분화 및 노출화가 적당히 어우러지고(이동조립 가능토록 세분화, 유리를 통한 내부공간의 노출 또는 open shelf 계획이 많이 보여졌다), 가로선을 강조하는 디자인과 Hard ware의 발달로기능성이돋보이는디자인이더욱돋보였다.

이번전시회는다가올새천년에대한새로운설레임과 기대감이 잘표현된 전시회라고볼 수있다. 한동안 유행했던 인위적인 칼라와 무채색보다는 다양하고 밝은 칼라와 천연 소재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그렇다면 올해에가장 주목해야 할특징은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이다. 여기에 공간의다변화를준새로운개념의공간디자인도눈여겨볼만하다. 살펴본것처럼‘ 2001년인테리어디자인 ’의가장큰흐름은새로운자재나, 칼라, 디자인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해서실용적으로보여주느냐에중점을두고있다.